

(사)한국불교학회 회장 이·취임  
박세일 서울대교수 초청강연

# 한반도의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

##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08년 6월 19일(목) 오후3시~6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최** (사)한국불교학회

(사)한국불교학회 회장 이·취임  
박세일 서울대학교수 초청강연

## 한반도의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식순

## 제1부 : 개회식

사회 : 하준생(총무이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고문추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위촉  
전임회장 공덕패 증정  
전임회장 이임사  
기금전달  
신임회장 취임사  
격려사  
축사  
내빈소개

## 제2부 : 초청 강연

사회 : 조성택(학술이사)

주제 -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폐회식

사홍서원



## 취임사

김 선 근

(사)한국불교학회 제18대 회장 겸 이사장

한국불교학회 제18대 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먼저 부처님의 무량하신 가피에 경배를 드리우고, 그동안 저에게 각별한 애호와 성원을 보내주신 각 종단의 스님 및 학회 회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 깊은 이 취임법식에 참석해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큰스님과 종단의 대덕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대신하여 오신 김규철 상임이사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교수님, 법화학·천태학연구회 회장이신 동국대 리영자 명예교수님, 본 학회 전임회장이신 이평래 교수님,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송명환 거사님과 전 이사장 조호정 거사님, 봉은사 구도회 대표이자 대한불교법조인회장이신 전창렬 변호사님, 저를 학문의 길로 인도해 주신 박성배 교수님과 전 문화관광부 중무관이셨던 이용부 선배님, 그리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불교학회는 선배학자들이 우리 문화를 향도한다는 원력으로 1973년 7월 7일 토요일 동국대 본관 교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선배학자들의 피땀 어린 연구의 결실로 오늘의 학회는 논문집 제50집을 넘어서는 알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의 토대 위에서 전임회장이셨던 이평래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고로 본 학회는 2006년 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

2007년 12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전임 회장단과 상임이사회 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꽃다발을 바칩니다.

불교가 우리의 조상들과 깊은 인연을 맺은 지 어언 1,70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는 불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사고와 언어와 행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는 우리 민족문화의 금자탑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불자들 모두가 일대사인연을 자각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불교는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불교가 이 땅에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불교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는 오늘 강연은 우리 모두가 대승보살도답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학회의 슬로건을 “정법을 보편화 하는 학회, 교단을 빛나게 하는 학회, 불교를 세계화 하는 학회”로 내걸고, 향후 학회운영의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 학기당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를 정기적으로 2회 개최하여 ‘학회운영은 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적법절차의 토대 위에서 학회를 이끌겠습니다.

둘째,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및 하·동계 학술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의 지속적 유지와 함께 국제 저명지(A&HCI)에 등재되도록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학회홈페이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개편보완하고, 아울러 영문홈페이지도 새롭게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년 1회 세계 최고의 석학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3만3천명을 목표로 '월 1만원 내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만3천의 수는 불교의 3천대천세계를 은유하는 것으로, 인재양성불사를 통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결사(結社)의 발원입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학회운영의 로드맵을 토대로 이 땅의 모든 대중이 '불교가 정말 참 좋다'고 감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광된 직책의 막중한 책무를 절감하며,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2008년 6월 19일



## 이 임 사

이 평 래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제16·17대 회장

이제껏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붓다님,

거룩하신 다르마님,

거룩하신 쌍가님께,

예배드리나이다.

몸kāya은 붓다님The Lord Buddha 아니며, (身亦非是佛)

붓다님The Lord Buddha은 몸kāya이 아니오니, (佛亦非是身)

오로지 진리dharma로 몸kāya을 삼으면, (但以法爲身)

모든 진리sarvadharmar를 깨달은 것이라네. (通達一切法)

(『대방광불화엄경』「0마하천궁중계찬품」제20, 『大正藏』10-102a)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신 붓다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일까.

저는 불교를 알듯 모를 듯 헤매던 젊은 시절에 이 글을 읽는 순간 불교의 본질을 깨달



있습니다. 진리dharma가 기록하신 붓다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교의 정수를 거머쥔 법열을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붓다님을 기록하게 섬기는 길을 찾은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도를 닦는데 목숨을 걸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통은 대웅전에 모신 샹까야무니 붓다님이나 무량수전에 모신 아미타붓다님 혹은 대적광전에 모신 와이로짜나 붓다님에게, 또는 관음전에 모신 관세음 보디씨드와님이나 지장전에 모신 지장 보디씨드와님에게 복을 빌고 원을 세우지만, 저는 요즘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를 기록하신 붓다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길동무들과 더불어 2003년 12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학회를 섬기느라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 만한 일을 한 것도 별로 없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회원동무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정성을 베풀어주신 모든 길동무님들께 머리 조아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것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것처럼 한국불교학회가 해야 할 일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불교학회는 불교학자들의 모임이므로, 불교학의 보루일 뿐 아니라 불교학을 철학·종교적으로 정립하는 산실이 기도 합니다. 우빠싸까Upāsaka · 우빠싸까Upāsikā · 빅슈Bhikṣu · 빅슈니Bhikṣuṇī, 사부대중께서 “불교학회”를 기록하신 붓다님으로 잘 모시고 섬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길을 알아야 가지, 그렇지 못하면서 무작정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바른 수행을 하지, 수행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수행을 제대로 할 수는 있다는 논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학회는 사부대중의 눈을 뜨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정말 고귀하고 성스러운 진리의 보궁(寶宮)입니다. 적극 동참하여 활성화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5월 31일



## 격려사

청 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먼저 한국불교학회 제18대 김선근 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학문적 업적의 결실을 기대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학회는 한국불교교단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불교학문의 정도를 이끌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학술단체입니다. 어언 35년이라는 시공간적 전통은 물론 우리 불교학계의 다양한 학자들이 한데 어울려 불교학문의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시대적 고민에 이르기까지 대중회향의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한국불교의 지향이 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불교학회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임회장 이평래 교수를 비롯하여 그간 학회를 운영해온 모든 학자들의 노고에 대해 종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아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김선근 회장체제 또한 학회는 물론 한국불교의 향도로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회장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대 박세일 교수를 초빙하여 시대적 화두인 '불교의 선진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

는 것은 불교학회의 전도를 기뻐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라고 평가됩니다.

오늘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김선근 교수는 일찍이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후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 바나라스 힌두대학과 네루대학 등지에서 공부와 수행의 깊이를 더한 분이십니다. 아울러 인도철학회 회장과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단체의 조직운영력과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는 사무행정력 또한 고루 갖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살려 한국불교학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김선근 교수님의 학회회장 취임을 거듭 축하하며,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위상을 토대로 불교학회는 물론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총철의 원력까지 경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초청강연에 왕림해주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 초청강연문

# 한반도의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

—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세일(朴世逸)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노동경제 석사 및 법경제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및 컬럼비아대학교 법경제학연구소 연구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문민정부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사회복지수석과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한국경제학회 청담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중학교 2년 때 어머니를 따라 청계산 청계사를 찾아 처음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환희심'을 느꼈다. 이때부터 불교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대학시절 서울 봉은사 '대학생 구도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법정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성철스님을 찾아 부처님께 3천배를 올리며 한 달 동안 수행하기도 했다. 당시 봉은사 주지 광덕스님께 상의상생의 가르침을 받고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깨달았다.



# 목차

## 1. 왜 한반도 선진화인가? ..... 16

- 첫째, 선진화 제1단계 : 南의 선진국 진입과 北의 근대화 시작
- 둘째, 선진화 제2단계 : 南의 선진국 완성과 北의 선진화 시작

## 2. 선진화란 무엇인가? : 선진국 5대 조건 ..... 19

- 첫째, 경제적 선진화 :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항아리형 경제
- 둘째, 정치적 선진화 : 포퓰리즘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 셋째, 사회적 선진화 :公私조화의 고품격사회
- 넷째, 문화적 선진화 : 多文化共生을 넘어 글로벌 문화창조로
- 다섯째, 국제적 선진화 : 세계공헌국가

## 3. 선진화의 목표 : 21세기 대한민국의 國家理想으로서의 선진국..... 24

## 4. 선진화의 철학 : 共同體자유주의(緣起的 자유주의) ..... 26

- 첫째, 공동체자유주의란?
- 둘째,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 5. 불교의 선진화란 무엇인가? 4대 목표 ..... 31

- 첫째, 時代불교
- 둘째, 衆生불교
- 셋째, 實踐불교
- 넷째, 世界불교

## 6. 불교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두 가지 제도개혁 ..... 34

- 첫째, 교육제도 개혁
- 둘째,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

## 7. 불교의 선진화 왜 중요한가? 5대 과제 ..... 39

- 첫째, 21세기는 상호의존의 시대임으로 [관계성]을 소중히 해야 한다.
- 둘째, 21세기는 창조의 세기임으로 [大자유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 셋째, 21세기는 분열갈등의 시대임으로 [中道와 圓融]을 배워야 한다.
- 넷째, 21세기는 정체성 위기의 시대임으로 [주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 다섯째, 21세기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임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 8. 새로운 수행법 : 佛國土건설과 勞動行禪..... 48

- 첫째, 緣起의 소중함을 배운다.
- 둘째, 職業倫理와 노동철학(匠人정신) 그리고 家族의 가치를 배운다.
- 셋째, 사회적 생산과 가치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
- 넷째, 虛無나 염세에 빠지지 않고 생명력과 활동성을 가진다.
- 다섯째, 自利卽利他 世法卽佛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 9. 맺는 말 : 22세기를 위하여 ..... 53

# 한반도의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

－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 1. 왜 한반도의 선진화인가?

금년은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60주년 되는 해이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에는 세 번에 걸친 도약의 역사가 있었다. 첫 번째의 도약이 40년대와 50년대의 [건국과 호국]의 역사였고 다음이 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의 역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80년과 90년대의 [민주화의 역사]였다. 이 세 단계의 도약을 통하여 우리는 명실상부 중진국의 선두주자로서 21세기를 맞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난 60년간 건국과 호국을 한 후 소위 근대화혁명(산업화와 민주화)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셈이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는 1945년 해방된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948년의 建國을 이루어 냈다. 36년간의 외국지배 후에 독립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6.25의 비극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護國에도 성공하였다. 이 건국과 호국이 40년대와 50년대의 우리나라의 국가목표 내지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그 후 우리에게 1960년 초부터 새로운 국가목표 내지 시대적 과제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보리고개로 상징되는 당시의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화였다. 그래서 60년대 초부터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産業化의 길로 일로매진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는 압축적 고도성장에 성공하였다. 1960년대 초 1인당 GNP 80불의 最貧國에서 1995년에 1만불 수준의 중진국으로 성큼 뛰어올랐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압축적 고도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40% 그리고 국방비의 75%를 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당시의 평균 실업률은 35% 정도였다. 환언하면 196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는 당시 아시아의 스리랑카나 아프리카의 가나 수준과 비슷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그러던 나라가 2006년 말 1인당 국민소득 1만 8천불, GDP 8,800억 불, 무역액 6,300억 불로 경제규모 세계 12위, 무역규모 세계 11위를 달성하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이 산업화의 성공을 배경으로 우리는 80년대와 90년대 새로운 국가목표 내지 시대적 과제를 가지게 된다. 즉 민주화가 그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 대한민국을 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러 좌절과 파행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결국 우리는 1987년을 轉機로 하여 민주화(절차적 민주주의)에도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60년간을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과 호국]의 단계를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어디에 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건국과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향후 지향하여야 할 21세기적 국가목표 내지 국가과제는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이 시대에 풀어야 할 새로운 역사적 과제

국민적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향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가목표 내지 국가과제는 남과 북이 모두 선진화혁명에 성공하여 [통일된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것, 환언하면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21세기 통일된 선진조국의 창조, 즉 한반도의 선진화는 2단계를 통하여 성취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선진화 제1단계 : 南韓의 선진국 진입과 北韓의 근대화혁명의 시작

제 1단계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는 단계이고 동시에 북한도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배경으로 서서히 민주화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단계이다. 이 제 1단계는 향후 10-15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남한은 앞으로 10-15년 안에 반드시 경제적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인구변화를 보면 남한은 향후 10년 전후로 총 인구가 줄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 잠재 성장률을 2%정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높은 경제성장률(예컨대 매년 6%정도가 되어야 향후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불 수준(2005년 가격)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을 이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10년 안에 근대화혁명에 성공하여야 하는가? 그 주된 이유는 북한에서 개혁과 대외개방 없이 지금과 같은 비정상국가, 실패국가(failed state)의 상황이 향후 10년 지속되면 [북한 전체의 사막화]가 급진전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민주

화라는 근대화 혁명을 추진할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자체가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고갈되고 파괴되어버릴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북한이 정상국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개혁개방을 통한 산업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민주화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그 이후의 과제가 되어도 좋다.

### 둘째, 선진화 제2단계 : 南韓의 선진화 완성과 北韓의 선진화 시작

제2단계는 남한이 선진국의 선주두자가 되는 단계이다. 단순한 경제적 선진국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 기여도에서도 명실 공히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단계이다. 동시에 북한도 근대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선진국 권에 진입하는 단계이다. 이 제2단계 선진화는 제 1단계 선진화가 끝난 후 적어도 1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한반도는 늦어도 2035-2040년경에는 세계선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앞으로 우리는 약 한 세대 이내(30년)에 [세계 上等국가]가 되어야 한다. 명실 공히 세계 일류국가인 성숙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 2. 선진화란 무엇인가? : 先進國 5대 조건

선진화란 무엇인가? 선진화란 간단히 이야기 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목표 내지 시대적 과제로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일류국가 세계상등국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첫째, 경제적 선진화 : 1인당 소득 3만 불의 [항아리 썰] 경제

우선 경제적으로는 2005년 가격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3만 불 수준에는 들어가야 한다. 200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내인 나라는 전 세계국가 약 220개국 중에서 오직 20개국뿐이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태리). 따라서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이란 대한민국이 이들 세계 최고 소득국가 20개국(G-20)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선진국이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국민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국민소득은 높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균 국민소득도 높지만 소득분배가 중산층(중위 60%)의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항아리 썰 경제]를 이루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항아리 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전략이 소위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는 [저변이 넓은 성장전략](broad-based growth strategy)을 추구하여야 한다. 초대기업 등 소수만이 주도하는 성장만으로는 소득의 분배 개선이 어려워 소위 [양극화 축소형 성장]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물론 저소득층이 보다 많이 기여하는 경제성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둘째, 정치적 선진화 : [포퓰리즘(populism)]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란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자유화의 단계]를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적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80-90년대 민주화를 이루었으니 21세기 우리의 과제는 자유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민주화는 무엇이고 자유화는 무엇인가? 민주화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혹은 협의의 민주주의(thin democracy)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자유화는 무엇인가? 자유화는 이렇게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재산과 생명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될 때 비로소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화와 자유화 즉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성립하게 된다. 이를 [실체적 민주주의(substantive democracy)] 혹은 [광의의 민주주의(thick democracy)]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21세기 우리나라가 정치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의 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화를 지나 자유화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정치적 선동가가 등장하여 대중의 일시적 정서에 영합(혹은 조작)하여 국정을 전횡하게 되면 법치와 원칙이 무시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도전받고 파괴되기 쉽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소위 非自由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이다. 요즘 지구 위에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선 포퓰리즘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法治주의](rule of law)의 정착이다. 주지하듯이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의 恣意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自意의 지배]가 아니라 [原則의 지배]인 법치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 셋째, 사회적 선진화 :公私조화의 고품격사회

사회적으로 선진국이란 공과私家,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기여수준, 그리고 책임의식이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즉 [公私調和의 사회]이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배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높은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자연 고품격의 사회가 된다. 이것이 사회적 의미의 선진국이다. 역으로 후진국의 특징의 하나는私家 과다하고 공이 적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남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사회가 후진사회이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높아 자기절제능력이 높은 사람을 동양에서는 [君子 혹은 선비]라 하였고 서양에서는 [紳士 혹은 教養人]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군자와 교양인이 많은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러한 군자와 교양인이 많은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저절로 첫째 信賴社會(trust society)가 된다. 공동체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2001년 세계가치관조사를 보면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66.3%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일본은 43.1% 미국은 36.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7.3%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적 사회 신뢰수준이 낮은 편이다.

둘째로 군자와 교양인이 많으면 그러한 사회는 저절로 인정이 넘치는 多情社會(compassionate society)가 된다. 그리고 인정사회로 발전하면 많은 이웃사랑과 이웃나눔의 자발적 활동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일상화되고 이를 통하여 크고 작은 공동체운동(community movement)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자원봉사와 공동체운동]이 많은 나라가 사회적 선진국이다. 미국에는 약 140만개의 자원봉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의 과반수가 주 4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출연한 크고 작은 재단이 약 40만개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문화적 선진화 : [多문화 共生사회]를 넘어 [글로벌 문화창조]로

문화적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하나는 [多문화 共生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우려는 관용(tolerance)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문화종교 민족에 대하여 독선적 자세와 다른 문화종교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 자세를 가져서는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다.

둘째의 조건은 다문화 공생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민족의 전통문화의 장점과 異國문화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문화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문화든 나름의 特長이 있다. 따라서 自國의 문화와 異國의 문화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다문화 공생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自國의 문화와 異國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계문화표준을 창조할 정도의 [문화해독력(cultural literacy) 과 문화 창조력]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섯째, 국제적 선진화 : 세계貢獻국가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선진국이란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世界貢獻國家]이다. 인류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당면해 있다. 핵과 테러의 문제, 인종전쟁과 실패국가의 문제, 빈곤과 질병의 문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부족의 문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범지구적 통치구조의 취약의 문제, 가족의 붕괴와 정신의 황폐화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적극 기여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그러면 저절로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따라서 선진국이란 군사적 경제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뛰어난 [문화력과 외교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학술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이 있어야 한다.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많이 가진 나라가 그리하여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국가] [매력국가]가 바로 선진국이다.

### 3. 선진화의 목표 : 21세기 대한민국의 [國家理想]으로서의 선진국

이렇게 선진국을 여러 측면에서 정의하여 보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화는 지금 오늘날 지구 위에 실재하는 선진국들 중 어느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위에서 우리가 선진국 5대 조건으로 정의한 선진국은 사실상 오늘날 지구 위에 실재하지 않으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 선진국], 즉 [21세기적 理想國家]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진화가 지향하는 이상적 선진국을 富民德國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덕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목표는 [이상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꿈과 이상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꿈] [대한민국의 이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 꿈과 이상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한국적 선진국], 우리의 역사와 풍토, 문화와 국민정서에 잘 어울리는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진화이다. 따라서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창조적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건국), 그리고 기아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산업화), 또한 독재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민주화) 투쟁하여 왔다. 이 모두가 [과거]와의 싸움이었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는 중진국의 선두에 서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와의 투쟁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꿈이 무엇이어서 하는가? 대한민국의 이상이 무엇이어서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나라를 만들려 하는가? 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

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동안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있다. 이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진국을 만들려 하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나라의 건설, 어떠한 미래질서의 창조에 있는가? 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여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은 무엇인가?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 어느 한 사람의 몫은 아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자들의 선도적 참여와 성찰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集團智와 집단에토스를 모두 동원하고 조직하여 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 발견하여 가는 과정, 창조하여 가는 국가적 국민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든 국민이 다 수용하고 시인하는 단계에 이를 때 그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이 곧바로 국민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國是가 된다. 앞으로 이러한 의미의 [21세기 대한민국의 國是]를 세우는 노력, 즉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을 찾는 국가적 국민적 노력, 창조적 선진화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선진화의 哲學 : 共同體自由主義 (緣起的 자유주의)

[國家理想]으로서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진화는 확고한 철학에 기초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철학이란 국가의 [구성원리] 내지 [운영원리]로서의 철학이다. 즉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제도와 질서를 어떠한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야 하고 어떠한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우리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미의 철학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국가시스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의 방향으로 개혁하고 운영하여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자유주의에 역행하는 구성 원리, 즉 자유주의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연대를 경시하는 철학에 기초하여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선진국진입에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공동체자유주의이고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선진화가 가능한가를 보도록 하자.

#### 첫째, 공동체자유주의란 ?

공동체자유주의란 한마디로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공동체 배려의 자유주의]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개인행복과 국가발전의 원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어 공동체의 연대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각자의 성찰과 배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민족이나 계급의 가치를 강요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집단주의(collectivism)]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동체의 강조는 어디까지나 외적 강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찰과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토론과 교육,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

본래 자유주의란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호하고 지키려 노력한다. 이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본래 무한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선은 그 무한의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의 목적도 그러한 개개인의 자기실현과 자아완성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두고 있다. 그래서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이 인간사회의 최고의 선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은 [자유사회(free society)]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하는데, 이를 위하여 권력의 자의를 법치를 통하여 제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인간은 [개체적 개성적 존재]이면서도 본래가 [관계적 공생적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며 공간적으로 사회를 떠나 살 수 없고, 또한 항상 자연 속에서 숨 쉬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공동체] [사회공동체] [자연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존재하고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발전하고 번창한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만능주의] [자유절대주의] [자유원리주의]이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유만능주의, 자유절대주의, 자유원리주의는 결국은 관계적 공생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 자유주의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발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류발전의 원동력인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지속가능한 자유주의] [발전적 자유주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반드시 [共同體자유주의]이어야 한다.

이 공동체자유주의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緣起의 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불교는 세계와 인간을 본래 연기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개인의 존엄과 창의와 자유)가 반드시 연기성(공동체)을 존중하는 자유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二元論的 논리가 강한 서구적 사고에서는 자유주의 앞에 공동체를 부쳐서 강조하여야 비로소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방향제시가 된다.

### 둘째,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공동체자유주의는 [인류발전의 보편적 원리]이다. 공동체자유주의를 따르면 인류는 발전하고 아니면 퇴보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지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쉽게 입증된다. 최근 세계적 경제사 연구가의 한 연구에 의하면 BC 1000경 당시 지구인들의 1인당 년 평균소득은 요즈음 가격으로 약 US \$ 150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AD 1750-1800년의 지구인들의 1인당 년 평균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면 약 US\$ 180수준이다. 즉 지난 약 2-3000년간 인류의 물질적 풍요의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다. 그 기간 중 생산성 증가율(기술진보 속도)은 년 평균 약 0.05% 정도로 미미했다. 약간의 생산성과 소득 상승이 있어도 곧 인구증가가 뒤따라서 성장을 잠식하여 버렸다. 한마디로 대단히 오랜 기간 인류는 물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나 1750-1800년 이후 역사는 크게 바뀌게 된다. 2000년 현재 지구인 평균의 1인당 년 평균소득은 약 US\$ 6,600이다. 지난 200년간 180불 수준에서 6,600불 수준으로 급격한 도약을 한 셈이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분명 하나의 기적이었다.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때문이다. 이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교역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 즉 [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확대] [국가의 경제규제와 개입의 축소] [법치주의의 정착]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다. 이들이 모두 중요하나, 특히 교역의 자유와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주장대로 노동생산성은 노동 분업(특화)의 수준과 정도(degree of specialization)에서 오고 분업과 특화의 수준과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장이 커야, 보다 세분화된 높은 수준의 분업과 특화가 가능하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난 200년간의 [동내시장]에서 [지역시장]으로 나아가 [국가시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시장의 확대가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보호, 교환과 거래자유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의 축소(세금축소와 탈규제) 과학기술의 발달 등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주의의 확대]가 바로 인류역사 속에서 지난 200년의 기적을 만든 주원인이고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든 나라가 이 기간 동안 같은 속도의 발전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성장이 빠른 나라도 있고 늦는 나라도 있었으며, 같은 나라도 발전이 빠른 시기도 있고 늦는 시기도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발전의 緩急을 결정하는 것일까? 시대는 이미 크게 보아 자유주의의 시대로 진입하였다면 자유주의 안에서 무엇이 발전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어떤 자유주의이냐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의 내용이 공동체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공동체 가치를 무시 내지 부정하는 [이기적 자유주의]는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공동체 가치와

연대를 경시하고 파괴하면 결국은 자유주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성장과 발전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역사는 자유주의가 [공동체 자유주의]일 때 발전하고 그리하지 못할 때 발전이 지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난 200년간의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당연히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철학은 [발전과 지속가능의 철학]인 [공동체자유주의]가 아니 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자유주의라는 [국가의 구성 원리와 운영원리]를 기초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각각의 분야에서 선진화 전략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 5. 불교의 선진화란 무엇인가? : 4대 목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선진화문제를 보아 왔다. 다음은 불교의 선진화문제를 보도록 하자. 불교의 선진화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듯이 불교의 선진화는 [先進佛敎]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선진불교란 무엇인가? 선진불교란 [21세기라는 시간]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빛과 광명이 되는 불교를 의미한다. 이 21세기라는 시간대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대에 사는 오늘의 우리 중생들의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당면 문제들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불교를 의미한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불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선진불교는 다음의 4가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첫째, 시대불교여야 한다.**

부처님은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르침을 선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시대 중생이 당면한 구체적 문제,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대적 불교가 아니다. 21세기가 아니라 20세기 혹은 19세기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더 이상 선진불교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면 그것은 일본의 시대불교이지 대한민국의 시대불교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가까이 인연 있는 중생부터 구하라 하셨다. 대한민국의 불교는 우선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적 과제들을 푸는데 광명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

물론 부처님의 말씀에는 時空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 많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시공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그 시대 그 공간 속에서 사는 불자들이 하여야 할 몫이다. 이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시대불교를 만드는 노력이고 불교의 선진화의 노력이다.

**둘째, 중생불교여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푸는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쉽고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중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중생을 위한 불교 소위 [소비자를 위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공급자를 위한 불교가 되어선 곤란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메시지의 내용도 그 전달하는 방식도 당연히 21세기에 맞고 이 시대를 사는 중생에 맞는 내용이고 방식이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중생의 고를 해결하는 내용의 메시지여야 하고 그 방식도 중생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방식이어야 한다. 환언하면 메시지는 중생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단순명료한 답이 되어야 하고 그 전달방식은 중생 친화적(people friendly)이고 소비자 친화적(consumer friendly)이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나 난해한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下化衆生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 중생의 근기에 맞는 내용과 방식의 方便 바라밀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천불교여야 한다.**

선진불교는 무엇보다도 실천불교여야 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종교는 허구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는 두 가지 큰 병을 앓고 있다. 하나는 空理空談이고 다른 하나는 言行不一致이다. 학계도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거기서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현상이 나온다고 본다. 이를 광정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불교는 僧과 俗이 하나가 되어 공리공담을 배제하고 가장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된 다음에 다음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모든 가르침에서 實事求是를 중요시 하여야 하고 모든 종교생활에서는 務實力行을 중히 여겨야 한다. 한마디로 승속이 함께 실천불교 보살행 불교를 해야 선진 불교가 될 수 있다.

**넷째, 세계불교여야 한다.**

21세기 세계화시대 사는 중생들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당연히 불교도 세계화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무엇인가? 세 가지 과제가 있다.

(1) 하나는 한국불교의 特長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웃에 알려주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한국불교의 장점을 이웃에 알려주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중요한 法布施의 하나이다.

(2) 둘째는 이웃 나라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일이다. 이웃 나라의 불교와 그들 나라의 국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

(3) 셋째는 우리의 특징과 이웃의 장점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21세기 세계불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1세기 이 지구촌의 중생들은 핵 테러 인권 인종갈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에너지부족 등등 수 많은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지구촌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불교와 이웃의 불교 속에 있는 장점들을 모두 모아 내어 21세기 새로운 세계불교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불교의 세계화이고 따라서 그 과정은 지극히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 즉 불교의 창조적 세계화가 있어야 선진불교가 될 수 있다.

## 6. 불교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두 가지 제도개혁

이상의 4가지 방향으로 불교를 선진화하여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두 가지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첫째, 교육제도의 개혁이다.

승가의 교육제도와 일반불자의 불교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크게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선 현재의 승가의 교육제도를 크게 개혁하지 아니하면 21세기 새로운 불교, 선진불교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불교 리더십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몇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불교대학과 승가대학의 교육제도에서 특히 세속의 학문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이해의 기회를 크게 높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학이외에 일반 사회과학(정치 경제 등) 인문과학(문학 역사 철학 등) 그리고 자연과학(과학 생명 환경 등)의 교육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말로는 世法과 佛法이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世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아니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과 고민을 알 수 없다. 중생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중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시대를 구할 수 있겠는가? 禪家에서 不立문자를 내세우는 전통이 있지만 그것은 世間을 외면하고 世俗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세법을 잘 알아야 下化중생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불법을 크게 펼 수 있다고 본다.

(2) 불교대학과 승가대학교육에 세계화교육(외국어, 외국역사, 외국문화교육 포함)과 정보화교육(IT, BT는 물론이고 첨단 과학기술교육 포함)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불교의 장점을 세계를 향하여 그들이 이해하는 世界語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불교를 그들 나라의 언어로 배우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 첨단의 IT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 文盲과 다르지 않다. 외국과 소통하지 못하고 IT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 이 시대의 종교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불교대학과 승가대학교육에서 세계화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3) 불교대학과 승가대학에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세상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의 학교교육으로 세상을 따라 갈 수 없다. 그래서 세속에서도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21세기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시대이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승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불교대학이나 승가대학을 졸업한 불자도 5년 혹은 10년 마다 새로운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아니하면 중생들과의 소통능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결국 높은 수준의 下化중생의 경쟁력, 攝受중생의 생산성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중생구제의 大願을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4) 교육제도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불교교육제도와 승가의 자격제도를 연계하여야 한다. 적어도 앞으로는 세계화되고 정보화된 내용의 고등교육을 받은 불자, 불교뿐 아니라 세간의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학문을 일정수준 필한 불자들에게만 승가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 승가의 자격을 가진 불자들에게도 앞에서 이야기한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새로운 향상교육의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승가의 자격제도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개인수행에 역점을 두는 [修行僧]과 중생교화에 역점을 두는 [法師僧] 등으로 나누며 각각에 걸 맞는 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相補相依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는 교육과 자격제도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불교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로 인하여 불교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둘째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혁이다.**

불교종단과 사찰의 조직과 운영원리, 즉 불교의 거버넌스를 크게 혁파하여야 한다. 몇 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하자.

(1) 우선 종단과 사찰의 조직과 운영을 점차 僧과 俗 간의 [일방적 수직적 統御구조에서 [쌍방적 수평적 協治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불교의 거버넌스를 [僧俗간의 통치구조에서 [僧俗간의 협치구조로 바꾸어 새로운 [21세기 형 新 불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불교의 모든 제도는 산중생활을 하는 승려본위로 조직되어 왔고 그래서 불교발전을 위한 일반신도의 참여(실력 발휘)는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불교의 거버넌스를 이대로 두면 불교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좀 더 민주화하고 참여적 협력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수행승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기본이고 원칙이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기본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누구나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을 찾아 그것에 특화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들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몫(pie)이 커진다. 이것이 모든 조직의 발전원리이다. 즉 특화(분업)와 협력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를 [協治의 原理]라고 부른다.

[수행승]은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수행에는 타의추종을 불허하지만

종단과 사찰의 살림살이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단과 사찰의 경제적 살림은 신도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전문경영인, 회계사 등)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수행과 교화는 수행 스님들이 가장 잘 하는 분야이기에 그 분들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종단이나 사찰이 나아갈 수행의 큰 방향과 교화의 큰 방향은 수행스님들이 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관리 경영하고 운영할 것인가 등은 世間法을 좀 더 잘 아는 法師僧이나 혹은 일반 신도중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승속간의 협치구조]가 되어야 불교가 크게 융성하고 불교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지금은 승가에게 너무 많은 것(자기수양, 사찰 운영, 교육기관 관리 등등)이 過부하 되어 있고, 일반신도 속에 있는 우수한 전문 인재들이 불교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생산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러한 조직은 반드시 발전이 늦어지는 법이다.

(2) 새로운 승속간의 협치구조는 먼저 [투명성(transparency)]과 [설명력(accountability)]을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여야 공동체전체가 발전한다. 수행승은 수행에, 법사승은 교화에, 그리고 종단과 사찰의 관리와 경영은 전문신도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과가 투명하게 모든 공동체구성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승속간의 협치가 가능하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 서로 자기의 전문분야에 특화하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無信이면 不立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치가 되어 공동체가 크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이던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설명력이 없으면

야합이 등장한다.

(3) 새로운 승속간의 협치구조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승속이 共有하는 불교발전의 [목표와 과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올바른 비전과 전략(vision and strategy)을 승속이 공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불교를 선진화하기 위해, 즉 대한민국의 불교를 [시대불교] [중생불교] [실천불교] [세계불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과제들을 설정하고, 그를 이루어 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a)우선 급한 것이 수행승의 수행정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정비와 환경조성이다. 평생 정진수행하는 청정한 수행승들이 노후에 자신의 생활(건강, 경제 등)을 걱정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한국불교의 제도적 실패이다. (b) 또한 새로 크고 있는 10-20대의 젊은 세대가 불경이 난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각종의 불교의식이 고루하여 그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불교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불교의 지도자들의 실패이고 책임이다. (c) 더 나아가 해외에서 일본불교, 티벳불교 그리고 남방불교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 불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한국불교 지도자들의 실패이다. 앞으로 이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불교발전의 비전과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세워 승속이 서로 분업과 협업을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분란하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실패는 쉽게 성공으로 전환될 것이다.

## 7. 불교의 선진화 왜 중요한가? : 5대 과제

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교의 선진화]와 반드시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선진화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화에 성공하려면 국민들 모두가 21세기 선진국민다운 [정신적 자본(품격)] [마음의 자본(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요구하는 이 21세기적 [정신적 자본] [마음의 자본]은 우리 불교가 그 어느 종교나 사상보다도 가장 많이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21세기는 불교의 진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대이다. 가장 잘 발현되는 시대이다. 21세기 이 시대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느 때 발전하고 어느 때 퇴보하는가? 등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국가 조직 개인은 반드시 퇴보하고 실패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아래의 5과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문제의 해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핵심적 역할과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제들이 있고 불교는 어떠한 기여가 가능한가?

**첫째, 21세기는 [상호의존의 시대]임으로 [관계성]을 소중히 해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로 인하여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성이 크게 증대하는 시대이다. 이를 소중히 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발전하고 이를 경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퇴보한다. 이제는 앞으로 남과 어떻게 잘 협조하고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제공하는가가 성공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환언하면 남에게 잘 해줄수록 자신이 발전하는 시대이다.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은 누가 지구촌 소비자들에게 잘 봉사하느냐? 보다 좋은 물건을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에 의하여 결정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세계성공은 누가 자신의 장점과 이웃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사상, 문화와 상품을 창조해 낼 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의 장점과 특기를 잘 조직해 낼수록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상품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계발전에 도 기여하면서 스스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요컨대 21세기는 남에의 봉사 그리고 남과의 협력이 발전과 성공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즉 서로가 상호의존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더욱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는 시대이다.

물론 21세기 뿐 아니라 지난 세기에도 남에의 봉사 그리고 남과의 협력이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점이 더욱 빠르게 중요하여 지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속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관계성을 소중히 하여 남에의 봉사, 남과의 협력을 잘 하면 보다 많이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남에게 봉사하고 남과 잘 협력하지 못하면 대단히 빠르게 퇴보하는 시대가 되었다.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의 정도가 대단히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이 관계성을 과거보다 더욱 더 소중히 하고 귀중히 하여야 개인이던 국가이던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너무나 자세히 [연기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셨다.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개인이던 국가이던 민족이던 혹은 계급이던 문화이던 [개체의 절대화]를 항상 경계하셨다. 21세기의 세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과 쇠퇴의 원리를 보면 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던 국가이던 부처님의 緣起論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이 그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21세기는 [창조의 세기]임으로 [대자유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21세기의 발전원리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에서 온다.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사실 누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소위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기존의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장소이동을 한다. 그래서 쉽게 보유자를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누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느냐? 신지식과 신정보를 창조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창조되는가? 한마디로 자유에서 온다. 창조적이 되려면 우선 [외적 속박]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 소위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사상과 생각과 표현의 자유 없이 인간은 창조적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적 속박]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 인간은 자기의 기존생각, 고정관념 등의 노예이다. 이를 벗어나야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 뉴-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과는 익으면 자연히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스러웠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간에게 외적 속박은 크지 않다. 문제는 내적 속박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속박을 벗어나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창조적이 되라고 수천 년 전부터 가르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창조적이 되지 않고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항상 강조한 것이 자유와 해탈이다 자유와 해탈이란 무엇인가 기존생각,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와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我相과 法相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로 여실히 볼 것]을 가르치셨다. 아상과 법상에서 벗어나면 소위 기존사고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寂寂하게 되고, 사물을 여실히 보려면 마음이 당연 惺惺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惺惺寂寂하게 사물을 보라는 것이 된다. 이 길이 바로 [선정과 지혜]의 길이고 새로운 지식창조의 길이다. 최근에 미국에서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이 성성적적(mindfulness)할 때 인간이 가장 창조적이 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인간은 더욱 더 창조적으로 되고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아이이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21세기 성공하는 개인과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이렇게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존사고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인이 되고, 보다 창조적이 될 때 그리하여 세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21세기는 [분열갈등의 시대]임으로 [中道와 원융]을 배워야 한다.

21세기는 발전과 더불어 분열과 갈등의 시대이다. 세계화는 발전과 도약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민족 간, 계층 간, 문화 간, 종교 간 분열과 갈등도 가져온다. 세계화에 잘 적응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하는 그룹 간에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그 것은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대립으로 나아가 정치적 안보적 불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세계화의 흐름을 타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며 공동체적 연대나 가치를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과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열과 갈등은 쉽게 단순화되면서 [사상의 二分法]과 [사상의 兩極化]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특히 인기영합의 정치적 선동가가 등장하면 더욱 이분법과 양극화로 단순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사회를 선과 악의 대립,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 이익집단과 이익집단간의 대립,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 종교와 종교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쉽게 빨려 들어

가게 만든다. 그러면 사회는 관리가 불가능한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고 중국에는 좌파의 독재나 우파의 독재를 불러들이게 된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분열과 갈등, 그리고 사상의 양극화는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더욱 증대할 수 있다. 민주화란 본래가 권력의 下方이동이기 때문에 그 동안 눌러있던 불만이 보다 용이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 전달 및 유통기술이 가미되면 더욱 불만 표출과 불만의 집단화 내지 조직화가 쉬워진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면서 민주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분열과 갈등은 수반한다면 민주화는 이를 보다 쉽게 격발시킬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더욱 한 사회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어떻게 통합과 원용의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가능성을 미리 줄여 나갈 수 있는가가 특히 양극화의 위험, 이분법의 위험을 어떻게 미리 줄여 나갈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환언하면, 21세기를 성공의 세기로 만들 수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이 증대하는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통합하여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원용의 단계까지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된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는 분열과 갈등을 뛰어 넘는 진리를 많이 가르쳐 왔다. 우선 초기불교에서는 극단론을 버리라고 中道를 가르쳐 왔다. 대승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중생들이 익숙하게 빠지는 이분법의 미망을 깨트리라고 不二법문을 가르쳐 왔다. 자신에 대한 아상뿐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하는 법상까지 벗어나야 함을 가르쳐 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원효스님은 一心二門을 통하여 이미 버렸던 非진리(차별문)와 취했던 진리(진여문)를 다시 하나로 포용하는 회통과 원용무애의 가르침까지 주고 계시다. 도대체 이 이상

더 사회통합과 국민단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충분하기에 오로지 실천의 문제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 바로 실천불교 즉 선진불교만 되면 된다.

**넷째, 21세기는 [정체성 위기의 시대]임으로 [주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21세기는 어느 민족이던 어느 국가이던 자신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이다. 인적 물적 정보적 문화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종래의 자신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새로운 정체성은 쉽게 만들지 못하여 어느 공동체가던 소위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류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남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니 무엇이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도대체 남과 나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화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여 이들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 더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창조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후진국과 중진국의 단계를 지나 이제 선진국의 문턱 앞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후진국적 내지 중진국적 국가정체성 내지 국민정체성(자기 이미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진국적 국가정체성 국민정체성을 창조하여 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후진국적 내지 중진국적 의식의 하나인 [피해의식]과 [후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웃의 강대국에 대한 피해의



식과 歐美에 대한 후진의식 내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피해의식과 후진의식의 많은 부분이 이미 극복된 면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의식의 심층에는 과거 시대의 피해의식과 후진의식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본다. 이 피해의식은 상황이 변하면 쉽게 공격적 가해의식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후진의식은 쉽게 배타적 우월의식으로 전환된다. 어는 것이던 건강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지난날의 피해의식과 후진의식(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지구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세계공헌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특히 불교의 受恩報恩사상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피해만 많이 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으로는 선진국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웃보다 후진하고 열등하다는 생각으로는 선진국가를 만들 수 없다. 피해의식과 후진의식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세계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민족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민족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6.25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하여 세계 16개국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3만 5천이 이 땅에서 죽었다. 부상과 행방불망까지 포함하면 15만 1천명이나 된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35%를 국방비의 75%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액이 6300억불의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다. 이렇게 무역대국이 된 것은 이웃나라들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웃나라로부터 많은 은혜를 졌다. 受恩하였다. 그러니 감사하여야 하고 이제 부

터는 報恩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한다. 국민적 국가적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나라를 돕고 세계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불교의 受恩報恩 사상을 통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공헌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21세기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정체성 국민정체성을 세우는 노력이 된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웃으로부터 피해만을 보았다가 아니라 세계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수은에 대하여 보은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선진화된 국가정체성 국민정체성을 세우는 노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21세기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임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21세기는 리더십위기의 시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의 리더십이 크게 표류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지도자들에게 진정성 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도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명분과 실재가 너무나 다르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서 지도자는 공인인데도 先公後私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많고 공이 너무 적다. 그러니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그 결과는 불신사회이다. 그러니 더욱 허구와 거짓이 날뛰고 선동과 조롱이 난무한다.

그런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선진화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뛰어난 많은 지도자를 가져야 한다. 역사는 국민이 만든다. 그러나 역사의 성공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선진화를 위해선 각계각층에서 선공후사하면서 각 분야의 본분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言行一致하고 務實力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불신의 공동체]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선진화 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 답은 불교의 [普賢사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현보살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화 리더십의 표본이다. 보현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항상 언행일치하고 선공후사한다. 보현은 교만하지 않다. 항상 下心하고 善聽하고 尊賢한다. 보현은 與民同樂한다. 보현은 중생이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 까지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한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보현의 사상으로 무장한 지도자(보현보살)들이 등장하여 간단 없이 自利利他행을 실천하여 나갈 때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8. 새로운 수행법 : 佛國土건설과 勞動行禪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교의 선진화 없이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당면할 많은 난제들을 불교가 선진화되면 비교적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당면할 난제들을 풀 수 있는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상호의존과 관계의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연기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셨다. 21세기 창조와 대자유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선정과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원용무애와 중도]를 가르쳐 주셨다. 정체성의 혼란이 심해지는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수은보은사상]을 통하여 올바른 주체성을 세우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21세기 리더십의 위기의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보현행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

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불교가 이 시대적 과제에 답하려는 [시대불교], 중생과 소통하는 [중생불교], 공리공담보다는 실사구시의 [실천불교], 그리고 세계화된 [세계불교]가 되기만 한다면 불교의 선진화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보았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대한민국의 國家理想의 추구는 사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불국토의 건설]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그렇고 불국토의 건설도 그렇고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함께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개혁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1/2정도만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도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법과 제도와 정책만 고쳐서 성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선진화를 위하여도 앞에서 (1)교육제도의 개혁 (2) 거버넌스의 개혁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제도개혁만으로 불교선진화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민의식이 선진화되어야 하듯이 불교의 선진화는 [불자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 따라서 불교의 선진화가 완성되려면 앞에서의 [제도개혁(교육제도와 거버넌스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새로운 수행법이 나와 불자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개혁되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역사는 마음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역사가 바뀌어진 다.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려면 제도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새로운 수행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은 수없이 많다. 새로운 수행법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수행법 중에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

을 찾아내면 그것이 새로운 수행법이다.

21세기 불교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수행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전문 수행스님들의 수행법을 논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법에 국한하여 논하려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21세기 불국토 건설을 위한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수행법은 勞動行禪(勞動念佛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노동행선이란 무엇인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직장노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그 노동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하는 수행법을 의미한다. 부처님 앞에 최고의 찬탄을 하며 불공을 드리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자신의 노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노동행선이다. 세계적 匠人이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듯이 조금도 昧하지 않고 오직 惺惺(mindfulness)하게 깨어서 자신의 혼을 자신의 작품에 붙여 넣듯이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직업노동 가사노동 학교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노동행선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불공드리듯이 하면 이르는 곳마다 부처를 본다(事事佛供, 處處佛像)]는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행선을 통하여 재가불자들이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이 땅에 불국토가 완성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동행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緣起의 소중함을 배운다.**

직업노동을 통하여 이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이 사회적 분업체계를 통하여 서로가 相依相生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느끼며 배운다. 세계화시대에는 더욱 더 커진 세계적 규모의 분업체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상의상생과 상호

의존의 망이 지구촌 전체로 확대된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직업노동을 통하여 지구촌 전체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지하고 있음을 배운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가사노동을 통하여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후손이 서로 면면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배운다. 연기적 세계관과 연기적 역사관을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통하여 몸으로 배울 수 있다.

**둘째, 직업윤리와 노동철학(장인정신)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배운다.**

나의 노동이 내가 모르는 수많은 중생에게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정성을 드리지 않고 부실하게 만든 자동화부품 하나가 내가 모르는 이 세계 어떤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한다면 자신의 노동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된다.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저절로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참여한다. 내가 기른 자손들이 머지않아 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그렇다면 내가 자손들을 얼마나 정성을 드려 훌륭한 인격으로 키웠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미래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생산과 가치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노동행선은 사회적 생산에 기여한다.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도 사실은 모두 노동행선의 결과이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惺惺할 때 인간이 가장 창조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노동행선이야 말고 인간을 가장 창조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 결과로 노동행선과정은 새로운 가치창조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사회적 진보와 경제발전의 견

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虛無나 厭世에 빠지지 않고 생명력과 활동성을 가진다.

萬海 한용운스님께서 화두좌선법의 부작용으로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처소를 고요하게 가지면 염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노동행선에는 있을 수 없다.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하는 노동 속에서 禪을 하기 때문이다. 아니 노동이 그대로 선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自利卽利他和 世法卽佛法이 둘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우리는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통하여 自利가 利他임을 매일의 노동현장에서 배운다. 내가 정성을 드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면 소비자들도 보다 행복해지고 나도 사업이 잘되어 행복해진다. 自利利他的 세계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심을 내면 우리 자식들도 이를 보고 배운다. 자리아타의 세계이다.

더 나아가 昧하지 않고 성성한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는 노동과정(직업노동 가사노동 학업노동 등)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의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세법과 불법이 결코 둘이 아님을 스스로 매일 느끼고 배우게 된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 해도 노동행선을 하게 되면 노동현장에서 노동과정에서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노동현장에서 노동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 [존재의 세계]와 [소유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 [차별의 세계]와 [진여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 그리고 이 두 세계가 둘

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환언하면 불법 즉 노동이며 노동 즉 불법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본래가 事事佛供하면 處處佛像이기 때문이다.

### 9. 맺는 말 : 22세기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는 둘이 아니다. 불교의 선진화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기본 방향과 철학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전략과 정책은 논하지 아니했다. 그 대신 이 글에서는 불교의 선진화 방향과 더불어 선진화를 위한 3가지 개혁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불교의 교육개혁이었다. 불교대학과 승가대학의 교육에서 세간의 학문을 많이 가르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교교육의 세계화와 더불어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둘째는 불교의 거버넌스의 개혁이었다. 불교를 각자 전문적 분업관계에 기초한 승속간의 協治구조로 바꾸어 [21세기형 新불교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설명력을 높일 것을 동시에 장기 비전과 전략을 세울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일반 불자의 수행법의 개혁이었다. 즉 노동행선(노동 염불 포함)으로의 수행법의 개혁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불교가 선진화 된다면 우리 先進불교가 공동체 자유주의(연기적 자유주의)를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선진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불교는 中道사상과 원융무애 사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普賢사상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및 사회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고, 受恩報恩사상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모범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의 선진불교는 勞動行禪을 통하여 이 땅을 불국정토로, 선진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글은 하나의 試論에 불과하다. 완성된 안도 최종결론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서로 동전의 앞 뒤면과 같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불교계에서 보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21세기 세계화시대 이 땅에 불국정토를 세우기 위한, 즉 이 땅에 선진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 구상과 토론이 불교계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불교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불교의 세계화방안은 무엇인가? 불교교육과 승려의 자격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우리종단과 사찰의 조직과 운영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설명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전문 수행스님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대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반신도의 수행법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본격적 대토론회 (예컨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불교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 비전과 전략])를 제창한다.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진지한 난상토론을 통하여 불교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승속간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반드시 나오리라 기대한다. 그러면 다음은 공동실천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이렇게 불교선진화에 성공하면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꾸었던 대한민국을 世界上等國家로 만드는 꿈( 1907년 국채보상운동 선언문을 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세계상등국가가 되기를 기대하면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선진화의 꿈은 앞으로 10-15년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다. 그래서 100년 후 22세기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자신들이 선진국에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100년 전의 선조들의 선진화노력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 (社)韓國佛敎學會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127호  
Tel. 02-2260-3130 Fax. 02-2273-3133 <http://ikabs.org>